

## 영진계전(주)

설립 15년 만에 1000억원 매출 견인  
국내 대표적인 발전 설비 정비 전문업체 성장 목표



이청훈  
영진계전(주) 대표이사

지난해 11월 13일 '해외건설 플랜트의 날'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올 3월 20일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원자력정비 Q 등급'을 획득한 영진계전(주)(대표이사 이청훈)는 법인 설립 15년 만에 국내 및 해외 법인을 합쳐 1000억 원대의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대표적 중견업체로 뛰어난 기술력과 함께 투명 경영으로도 널리 알려진 기업이다.

그 중심에는 1982년 현대그룹 공채로 입사(현대중공업 근무)해 SK건설, 금호건설, 쌍용건설 등을 두루 거친 이청훈 대표이사가 있으며, 그 자신이 전력기술자 특급, 전기공사기술자 특급, 전기기술감리원 특급 자격을 보유한 '특급 기술인'답게 현장 중시 경영, 미래 경영, 책임 경영을 모토로 최고의 서비스, 첨단 기술력 발휘를 앞장서 실천해 나가고 있다.

### 현장 중시, 미래 책임, 투명 경영 구현

이청훈 대표이사는 10여 년 전 부터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원자력 및 화력발전 정비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예견하고 화력 및 원자력발전소 경상 정비에서부터 전기

설비, 계측제어 설비 유지 및 보수는 물론이고, 건설업(전기, 소방, 통신), 민간 부문 플랜트 및 하우징 공사, 정보 통신, 소방 등을 아우르는 폭넓은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실적을 쌓아왔다.

특히 이 회사는 2007년 베트남에 첫 해외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2008년 인도네시아 지사 설립, 2009년 대만 현지법인 설립 등에서 보듯 동남아 국가 진출에 앞장서왔다. 최근에는 2011년 지사를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200억원대의 매출을 달성할 만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집트에도 법인을 설립하는 등 중동 지역 국가 건설산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등 향후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이와 함께 2013년 지중배선 전문회사 인증 획득,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까지 마친 영진계전은 청정 에너지인 신재생 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태양광 발전 부문을 전담하는 자회사인 영진솔라테크(주)를 설립 운영 중에 있으며, 집중적인 기술 개발 투자로 지난해에는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감시 시스템용 검출기 외부 온도 보상장치 특허 등록, 인과 관계 그래프 분석 장치 및 분석 방법 특허 등록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영진계전 사옥. 영진계전(주)(대표이사 이청훈)는 법인 설립 15년 만에 국내 및 해외 법인을 합쳐 1000억 원대의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대표적 중견업체로 뛰어난 기술력과 함께 투명 경영으로도 널리 알려진 기업이다.


현재 영진계전(주)가 수행중인 분야별 공사는 △ 원자력 수화력 발전소 건설 및 전기/계장/기계설비/유지보수 공사 △ 송배전 설비 공사 및 유지보수 공사 △ 정유, 석유화학, 환경설비 플랜트 건설 및 전기/계장/기계설비/유지 보수공사 △ 공장 신축 동력공사/기계 및 자동화 설비/신설 공사/유지 보수 공사 △ 운반 하역 설비 공사 및 유지보수 공사 △ 빌딩 및 APT 전기/기계설비/소방/정보통신 공사 △ 해외 플랜트 및 일반전기/기계설비/소방/정보통신 공사 △ 엔지니어링 및 감리 △ 자재 구매 및 조달 △ 신재생 에너지 사업(태양광 발전) 등 광범위하다.

### “국내 대표적인 발전 정비 전문 업체로 성장”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3명의 임원과 209명의 스태프(직원), 625명의 기능직 사원 등 총 847명의 직원의 정점에 있는 이청훈 대표이사는 “영진계전(주) 설립 이전까지 20여 년간 국내 우수 대기업에 몸담았던 경험들이 협력 관계에 있는 대기업들의 시스템 속지는 물론이고

이들 기업이 요구하는 엔지니어링 및 기술 수준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면서 “향후 국내 발전 설비 정비 시장 개방에 대비, 대표적인 발전 설비 정비 전문 업체로 성장하는 것이 궁극적인 사업 목표”라고 야심찬 포부를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청훈 대표는 “사훈(社訓)이기도한 신의(信義)를 기업 가치로 삼아, 2017년 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전 직원이 지주회사로 운영되는 명실상부한 ‘클린 회사’를 만들겠다.”며 “2세 경영 승계가 아닌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을 통해 영속적으로 발전하는 ‘고객 가치 지향 전문 기업’으로 더욱 성장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금번 원자력산업회의 회원사 가입을 통해 원자력산업계의 충실한 동반자로서의 역할 수행은 물론이고 향후 발전 정비 시장 개방에 대비,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 이상근 기자 / 프리랜서